

좋은 글을 찾아서

李 翊 夔

(서울대 교수·국어학)

1

국어학자로서 문학 작품을 보는 視角은 몇 가지 특별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남다르게 맞춤법에 민감하다든가 문장의 文法性에 엄격하다든가 등이 그것이다. 어떤 글이 作文的으로 훌륭한가, 또는 文體上으로 특이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는가 등도 국어학자들이 관심사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학자들이 이러한 일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는 일은 아직 별로 없었던 듯하다. 문학 작품은 문학평론가에 의해 문학 작품으로서의 成敗만 평가받았을 뿐 그것이 국어학자에 의해 하나의 글로서의 優劣을 평가받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필자도 아직 문학 작품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을 시도해 본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료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우리 학계가 아직 이 방면으로 마음을 돌릴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문학 작품의 문장을 국어학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라는 청탁이 왔다. 이제 서서히 국어학이 이 방면으로 寄與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어떻게든 기지개를 켜긴 켜야 한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극히 초보적이고 또 단편적이지만 평소 눈에 띄었던, 어떤 이유에서든 필자의 눈을 멈추게 했던 문장을 몇 제시하고, 그 문장들이 왜 필자의 눈을 멈추게 하였는지를 논하여 숙제를 면코자 한다.

2

최근 크게 작광을 받고 있는 梁貴子의 작품을 읽다가 눈에 거슬리는, 또는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하는 문장이 몇 눈에 띄었다.

- (1) a. 어떻게 수습이 될런지 내가 더 걱정인 판이다. ('원미동 시인')
 b. 산길에 피어있는 꽃이름을 묻기도 하고 푸드덕거리며 날으는 새이름을 묻기도 했다. ('쿠머저리새')

예문(1a)의 '될런지'는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맞춤법인데 '될는지'가 옳다. '될지'라고 써도 좋고, 또 그 편이 더 옳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적어도 '되는지, 됐는지'의 '-는지'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런지'로 표시해서는 옳지 않다. '-런지'는 어떤 경우에도 쓰이는 일이 없는 표기일 뿐이다.

예문(1b)의 '날으는'은 '나는'이 옳다. 한때 '날으는 원더 우먼'이란 TV 프로의 이름이 있었지만 '날으는'은 분명히 올바른 국어가 아니다. '우는 아이'를 '울오는 아이'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놀-, 날-, 울-, 머물-'등의 'ㄹ'末音 동사가 語尾 '-는'을 만날 때 '으'가 介在되는 법칙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서 '날으는'이 꽤 널리 쓰이는 것은 '내가, 나를, 나는'의 '나는'과 同音語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나는 원더 우먼'이라 하면 'I am Wonder Woman'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語法에 어긋나는 '날으는'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예문 (2)에서는 그러한 의미 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없는 맥락이므로 (또는 音節數로써 운율의 효과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날으는'은 전적으로 잘못된 용례라 하겠다.¹⁾

다음 예문 (2a)도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한다. '초호 고덕쫘로나'의 語尾 '-나'가 왜 여기에 쓰였는지 의아롭다. '-나'를 빼는 것이 한결 낫겠다. 그리고 '찍혀져 있다'도 '찍혀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며, (2b)의

1) 이 작가는 최근의 한 다른 소설에서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눈이 우리를 흘려서 지금 허허벌판울 헤매는
 것인지도 몰랐다. ('잘가거라 밤이여')
 처럼 '든'이라 해야 할 것을 '들은'이라고 잘못 표기하고도 있다.

‘밝히우고’도 ‘밝히고’라고 해야 옳다.

- (2) a. 마루의 왼쪽 모퉁이에서부터 햇볕이 기어들고 있었으며 햇볕이 닿는 마루 끝쪽에 놓인 찢어진 신문에는 초호 고딕쫘르로나 <빠 추값 폭등>이 찍혀 있다. (‘귀머거리새’)
- b. 스위치를 찾아 삼십축 백열구를 환히 밝히우고 나면 모든 것이 보다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나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귀머거리새’)

다음 문장도 비슷한 결합을 보이는 문장이다.

(3) 「야, 이 새까! 이리 못 나와!」

가게 안으로 쫓아들어가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내는 빨간색의 소매 없는 런닝셔츠를 입고 있어서 땀에 번들거리는 어깨죽지가 엄청 우람하게 보였다.

「깡판 치기 전에 빨리 나오란말야!」

가게 앞에 서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옷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그도 당연히 런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원미동 시인’)

마지막의 ‘보여졌다’는 ‘보였다’라야 할 것이다. 그 앞의 문장에서는 ‘보였다’라고 바로 썼는데 두 가지로 구별할 이유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보여졌다’는 ‘찍혀’와 마찬가지로 굳더더기 ‘지다’를 쓸데없이 덧붙인 문법에 어긋나는 형태인 것이다.²⁾

예문 (3)에서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부분도 좋은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매도 달린데다가 색도 흰색이었으므로’ 정도면 한결 낫지 않을까 한다. ‘소매도 달린’의 ‘도’가 왜 쓰였는가를 따져볼 일이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굳이 하나 더 지적하자면 ‘그랬으므로’도 필자에게는 매끄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그러니’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 보다는 都是 ‘그랬으므로 그도 당연히 런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전체가 어떨까 싶다. ‘두 개의 옷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런닝셔츠 바람이라는 것이 필자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그러나

2) 이 작가는 다른 글에서 ‘찢긴’이라고 해야 할 것을 ‘찢기워진’이라고 쓰기도 있다. 불필요한 ‘우’와 ‘지’를 겹치기로 通用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小心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梁費子의 문장을 하나만 더 보기로 한다. 다음 문장도 야릇하게 필자의 호흡을 깨는 문장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 (4) 가을의 햇별은 골고루 투명하고 여기저기 피어 있는 산의 가을꽃이
 잎사귀마다 매달고 있는 무늬가 섬세하기 짝이 없다. (‘귀머거리새’)

이 문장이 필자에게 거칠게 느껴지는 까닭을 정확히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으나 다음 몇 가지는 지적할 수 있을 법하다.

첫 번째로는 ‘여기저기 피어 있는 산의 가을꽃이’가 어떤 결합을 안고 있는 듯하다.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산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가을꽃’이나 ‘산자락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가을꽃’처럼 ‘산’이 저 앞쪽으로 나가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 산의 가을꽃이 저 산의 가을꽃보다’나 ‘이 산 저 산의 가을꽃’은 자연스러운데 ‘예쁘고 귀여운 산의 가을꽃’이나 ‘눈부신 산의 가을꽃’ 또는 단순히 ‘(나는) 산의 가을꽃을 (좋아한다)’와 같은 표현은 어색한데 그 이유를 간명히 설명키는 어려워 보인다. 어떤 리듬의 문제가 국어 문장을 지배하는 일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여기저기 피어 있는 산의 가을꽃’은 국어답지 않은 표현이요 서툰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가을꽃이 잎사귀마다 매달고 있는 무늬’도 필자에게는 좋은 문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잎사귀’는 무엇일까? 꽃잎인가 나뭇잎인가? 語形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後者일 것이다. 꽃잎을 잎사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저기 피어 있는 꽃이 나무 잎사귀마다 매달고 있는 무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다면 ‘잎사귀’는 역시 꽃잎일까? 꽃잎을 굳이 잎사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세 번째로는 ‘햇별은’과 ‘무늬가’사이의 呼應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투명하고’까지의 문장과 그 뒤의 문장으로 갈라지는 構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투명하고’의 ‘-고’와 같은 語尾로 접속될 성질의 문장일까 하는 의아심을 불러 일으킨다. 앞뒤 문장이 對等한 관계에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햇별은’과 ‘무늬가’의 助詞 사용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무늬가’를 ‘무늬는’으로만 고쳐 놓아도 이러한 문제 대부분은 해결되는 듯

이 보인다.

이상에서 한 작가의 소설에서 맞춤법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그 표현이 서툴거나 혼란스럽다고 여겨지는 문장을 몇 개 보았다. 작가의 글은 모범적인 글이어야 하고, 모범적인 글이란 무엇보다 먼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어야 할 것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글이 결코 좋은 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작가는 특히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못지 않게 그 내용을 담는 문장을 다듬고 가꾸는 일에도 渾身の 힘을 기울여야 하고 또 그러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일 것이다.

3

작가는 썬표 하나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썬표에 얽힌 묵은 이야기를 하나 했으면 한다.

(5) 바다는 불이 켜져 있으면 고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의 洋燈과도 흡사하다. (李歐河, '푸루스트의 散文')

이 예문 (5)는 한 동안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문장이다. 李歐河 선생이 푸루스트의 수필들을 번역한 '푸루스트의 散文'이 한 때 서울대학교 교양 국어 교재에 실린 일이 있다. 그 때 우리는 이 글을 가르치며 예문 (5) 앞에서 찢찢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무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풀 길이 없었던 것이다. 국문과 교수들이 의견을 모아 보았으나 신통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불문과 교수들에게 수소문하여 原文을 구해 보려 하였으나, 그것도 如意치 못하였다.

1969년의 한 강의실에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以實直告, 이 구절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바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어린애가 고독을 모르다니 그것이 都是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철학과 다생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다는' 다음에 썬표를 찍자는 것이다. 순간 머리 속에 閃光이 번쩍 빛났다. 그렇다, 그렇구나, 바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문 (5)를 썬표를 넣어 다시 써 보기로 하자.

(5)' 바다는, 불이 켜져 있으면 고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의 洋燈과

도 흡사하다.

불은 바다에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洋燈에 켜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4중 原文을 보고³⁾ 더욱 확실해졌다. 關係副詞가 ‘洋燈’과 ‘불이 켜져 있으면’을 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풀리고 나면 이 문장의 의미도 저절로 풀린다. 어른에게 육지로부터의 피로를 풀어 주고 太古의 새로움으로 위안을 주는 바다는 마치 캄캄한 밤을 불을 밝혀 어린애에게 위안을 주는 등불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없는 국어로써 외국어를 번역해 놓고 보면 표현도 국어답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문 (5)에서처럼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는 때도 많다. 그러나 쉽표 하나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는 길도 있음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점에서 근래 쉽표 사용에 고심하는 작가가 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이제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따라서 그 작가 역시 이제는 신진 작가가 아니지만, 金承鉉의 소설을 읽으며 몇 가지 새 世代 물결의 新鮮感에 흥분을 느낀 적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쉽표 사용이었다.

(6) a. 형광등이, 납았는지, 불이 사그라졌다가 다시 켜지곤 했다.
(‘多産性’)

b. 천사는, 처음 출근한다는 기쁨 때문에 역시 새벽 네 시에 잠이 깨어 있는 나를 아직도 자고 있는 줄로 알고 발소리를 죽여 가며 내 문 앞을 조심조심 걷는다. (‘多産性’)

예문 (6a)의 쉽표는 없어도 의미 전달에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 쉽표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거기에서 잠시 숨을 쉬며 읽노라면 정말 그렇게 읽어야 옳다는 생각이 들며 그 쉽표가 참 신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납았는지’는 사실 잠깐 머릿속을 스치는, 한層位 낮은 삽입구의 성격이며, 이를 쉽표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당시 이 쉽표는 필자에게 新鮮한 충격이었다.

예문 (6b)의 쉽표는 비중이 더 큰, 그만큼 더 적절히 사용된 쉽표라 할 만하다. 이 문장은 얼마간 모호성을 띤 문장이다. 한참까지는 ‘처음 출근한다는 기쁨 때문에 새벽 네 시에 잠이 깨어 있는’ 사람이 ‘나’가 아니라 ‘천사’인 것처럼 誤解를 일으키는 점이 그것이다. ‘천사는’ 다음의 쉽표

3) 이 原文은 乙酉文化社에서 간행한 ‘李歐河 隨筆選’(1972)에 실려 있다.

는 그러한 혼란을 덜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의미의 모호성을 극복하는 데 삽표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예문 (5)에서 확인한 바 있거니와 예문 (6b)의 삽표 사용은 그러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작가들의, 국어 문장과의 부단한 씨름을 보는 것 같아 예문 (6)을 보며 필자는 당시 새 世代 작가들에게 敬意를 표하고 싶기조차 하였었다.

4

이왕 金承鉦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작가의 글 한 부분을 마저 보기로 하자. 역시 ‘多産性’의 한 부분이다.

(7) 그리고 침을 삼키고 “네”라고 “커피”만큼 작게 말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다 돌아왔고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다음에 “네”.

—오늘 낮에 무얼 하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침묵.

—빨래하셨어요?

침묵.

위의 장면은 예문(6b)의 ‘천사’, 즉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주인집 딸과 그 집 하숙생이 다방에서 첫 테이트를 하는 장면이다. ‘커피만큼 작게 말했다’는 구절도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당시 커피 가격이 동결되어 물가는 오르는데 커피값은 올릴 수 없었다. 이에 커피의 양을 자꾸만 줄여 갔던 것이다. 한꺼번에 두 잔을 시켜 마시기도 했던 시절의 배경을 알면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해될 것이다.

예문 (7)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장의 길이다. 문장이 새 行이 진행될수록 점점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行에서는 ‘침묵’하고 겨우 한 단어로 끝났다. 줄이 점점 짧아지다가 점 하나로 끝났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各 行의 길이를 점점 짧게 해 간 것은 무엇을 意圖한 것일까? 결코 우연의 결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작가의 어떤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이 소설에서 女高를 갓 졸업한 여주인공은 몹시 수줍음을 타는 소녀다. 다방에도 처음 나와 본 것이다. 거기에 남자와의 첫 테이트.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목소리는 점점 가

어둡고 몸도 점점 오그라든다. 예문 (7)의 行의 길이는 바로 이 분위기와 일치한다. 문장의 길이도 함께 점점 오그라들면서 짧아지는 것이다. ‘침묵.’ 하고 끝날 때는 마치 소녀의 몸이 조그만 점 하나가 되어 의자에 꼭 파묻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만일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지 않고, 그리하여 가령 마지막 行을 ‘이번에도 끝내 침묵을 지켰다’ 라든가 ‘코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글의 분위기, 아니 글의 효과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예문 (7)을 읽으면서 필자는 마치 石工이 돌을 다듬듯 작가가 국어 다듬기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사실 작가는 그 나라 언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며,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문장을 다듬는다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작가가 몇 있다. 특히 문장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皮千得과 李泰俊이다. 이들의 다음 두 예문도 필자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문장들이다.

(8)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皮千得, ‘오월’)

(9) ‘비등’이란 대체로 무엇이뇨?

하늘이 우롱거림을 천둥이라 땅이 우롱거림을 지등이라 하나니 여기 코가 우롱거림을 비등이라 한들. (李泰俊, ‘비등’)

예문 (8)은 범상한 우리로서는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우아한 간결체 문장이 아닌가 한다.

(8)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먹은 젊은이의 청신한 얼굴과 같은 달이다.

정도가 고작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문체일 것이다. 그런데 예문 (8)에서는 ‘오월=청신한 얼굴’로 뛰었을 뿐만 아니라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란 뛰어난 省略法을 구사하고 있다. 화가들이 덧붙이며 끊어내며 한 폭의 油畫를 그려내듯 문장 하나하나를 刻苦의 정신으로 다듬은 결과일 것이다.

예문 (9)는 또 다른 매력을 주는 글이다. 역시 전체적으로는 省略法에 의해 간결체를 추구한 점이 매력의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특이한 매력을 준다. 비등이라 한들, 이처럼 ‘한들’로 한 문장을 끝맺는 방식은 국어에는 원칙적으로 없는 방식이다. ‘한들 어떠리’ 정도의 ‘어

떠리'를 생략한 것이겠는데 그것이 新鮮感을 준다. 이 비슷한 手法은 '하늘이 우렁거림을 천둥이라 땅이 우렁거림을 지둥이라 하나니'에도 나타난다. '천둥이라' 다음에 으레 '하고' 정도가 쓰일 것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예문 (9)에서는 語尾 선택도 주목을 요한다. '무엇이뇨'의 '-뇨'와 '하나니'의 '-나니'가 매우 적절히 선택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행문의 일부인데 같은 방에 同宿하게 된 낯모르는 사람이 코를 하도 심하게 고는 바람에 잠을 설친 이야기를 코믹하게 쓴 글이다. 그 코믹한 분위기에 古語의인 냄새를 풍기는 이 語尾들이 매우 적절히 어울려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집 다섯 짜리가 가로되'의 '가로되'처럼 근엄한 분위기에 쓰이는 표현이 오히려 코믹한 이야기에 효과를 내는 일은 흥미롭다.

사실 국어에서는 語尾(내지 助詞)의 선택이 어려울 때가 많다. 語尾 하나에 의해 미묘하게 글의 맛이 달라지고 글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비둥이란 무엇이뇨'의 '-뇨'를 바꾸어 '비둥이란 무엇이냐, 비둥이란 무엇이니, 비둥이란 무엇인가, 비둥이란 무엇일까, 비둥이란 무엇이지' 등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 어느 두 짝도 의미가 똑같지는 않다. 그런데 만일 이 미묘한 의미차를 살려 영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해 보라. 神이 와도 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국어는 語尾가 발달하여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장점을 잘 살려 語尾 하나의 선택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예문 (9)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글이라 생각한다.

語尾의 미묘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글 하나만 더 보기로 하자.

(10) 地球가 손 내밀어 소매 던질 당길 때

어느 봄 저녁 설악산 五色 岫에서

민박하다 뜨고 싶다.

경주 南山 한 모퉁이

김시습 숨어 살던 골짜기도 좋지만,

봄꽃 어둡고 민박도 없어. (黃東奎, '五色에서')

위 詩의 마지막 '없어'의 語尾 '-어'가 야릇한 매력을 준다. 만일 이것을 '없다'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저 앞의 '뜨고 싶다'의 '싶다'를 '싶어'로 하면 어떨까? '싶다'와 '싶어'의 차

이, ‘없다’와 ‘없어’의 의미 차를 한 마디로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국어 語尾의 의미는 미묘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쨌든 ‘없어’의 語尾 ‘-어’ 때문에 이 詩가 필자에게 한결 매력적으로 읽힌다.

필자가 읽는 글이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적어도 필자가 대하는 작가들 중에서는 金承鈺, 皮千得, 李泰俊 셋은 우리 나라 작가 중 가장 개성적인 文體를 구사하는 분들이 아닐까 한다. 그 개성적인 文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일일이 분석할 겨를이(겨를보다는 능력이) 없지만 그것은 아마도 문장의 길이와 語尾 등의 선택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보다는 문장을 이모저모로 정성껏 다듬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깔끔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가가 주위에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5

다음은 필자에게 기쁨을 주었던 描寫 몇 예를 보기로 한다. 문장 驅使에서 작가가 참으로 그 才能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고 독자가 글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것은 描寫에서 아닐까 한다. 그만큼 필자는 멋진 描寫에 많이 끌리는 편이다. 먼저 李清俊의 문장 하나를 보기로 한다.

- (11) 열 걸음도 못 떨어져 앉은 거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담뱃불만 이따금씩 숨을 쉬고 있다. (‘石花村’)

대개는 ‘담뱃불만 밝아졌다 흐려졌다 하였다’고 할 것을 담뱃불에 생명을 주어 담뱃불이 ‘숨을 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만한 비유는 흔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 비유가 기분 좋고 오래 인상에 남는다.

다음 黃東奎의 詩 한 구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 (12) 어제 오후 큰눈이 내려
 浦口의 길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겨울 편지’)

눈이 길을 ‘지워 버렸다’는 표현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한 詩人의 뛰어난 감각이, 그리고 국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지우다’의 의미를 擴張하고 우리의 視角 또한 그만큼 넓혀 주는 것이다. 꼭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있는 단어로도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국어는 무한히 그 힘을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徐廷仁의 소설의 한 부분이다. 파도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파도가 집요하게 방파제를 부수려들 듯 집요하게 파도의 묘사를 물고 늘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 (13) 바다에는 수평선이 없었다. 거대한 파도들이 깊은 물이랑을 뒤로 끌면서 말 위에 높이 앓듯 흉흉하게 솟구치고 있었다. 하얀 포말들이 말갈기처럼 그 위에서 부서졌다. 바다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방파제를 넘어다보면서 사납게 출렁거렸다. 바다는 세웠다. 하늘은 낮고 무거웠다. 하늘과 바다의 심한 요철과의 사이에는 농축된 대기가 가득 차 있었다. 공기는 투명체가 아니었다. 탁한 그 젓빛 공기를 뚫고 용솨음친 물결은 문득 정지하여 정상을 이루면서 적을 찾다가 밀이 무너지는 바람에 못다 한 미련을 가슴에 간직한 채 내부로부터 붕괴되어 소리를 내면서 허물어졌다. 두 개가 서로 만나면 소낙비 같은 물방울을 하얗게 내뿜으며 맞붙어 싸웠다. 그러다가 잦아지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방파제를 보면 그들은 치열하였다. 움직이지 않는 콘크리트 벽은 생리부티가 그들과는 상극이었다. 하나가 후려치면 다음 것이 뒤따라 후려쳤다. 때로는 미쳐 앞엿것이 스러지기도 전에 뒤엿것이 그 위로 덮쳐 내리쳤다. 인쇄심 많고 말 없는 검붉은 방파제를 따라 길게 파도는 백열전을 그치지 않았다. 미쳐 날뛰는 파도는 그칠 줄을 몰랐다. 노한 넵툼은 송두리째 꿈틀거리고 있었다. ('물결이 높던 날')

일찍이 우리 작가의 글에 이만큼 철저하고 치열한 描寫가 있었던지 모르겠다. 서양 소설에서 우리는 지나치리만치 섬세한 묘사 장면을 만나는 수가 흔히 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작품의 묘사는 너무 疏略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필자는 이를 양쪽의 만화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즐긴다. 같은 신문 만화인데도 가령 Blondie를 보면 머리카락 하나 단추 하나까지 섬세하게 그린다. 그에 비해 우리 만화는 너무 거칠다. 좋게 말하여 선이 굵고 餘白의 美가 있지만 역시 우리에게서 좀더 끝까지 追求해 들어가는 丈人の 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예문 (13)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사실 필자가 이 예문을 처음 대했을 때 그것은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우리 주위에도 이처럼 치열한 追求精神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이제 치밀하기 그지없는 멋진 描寫가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있다.

좋은 描寫를 보면 작가는 훌륭한 調練師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 거칠어지려면 끝없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세련되려면 또 끝없이 세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調練師를 만나 잘 길들여진다면 국어의 힘은 한결 강해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좋은 描寫를 만나면 기쁜 것은 바로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6

필자는 종종 歷代 最高의 文章家로 崔南善을 든다. 가령 그의 기행문을 읽으면 그렇게 압도당할 수가 없다. 어떤 글이 이 이상으로 사람을 압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처럼 사람을 압도하는 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필자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화려한 어휘의 驅使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白頭山觀參記에서 한두 부분을 보기로 하자.

(14) a. 가도 가도 여전한 밀림지대이다. 하루쯤으로야 우리의 長遠 深密한 至味를 다 알겠느냐 하는듯 이갈나무의 長林은 여전히 끝맛한 맵시와 싱싱한 빛과 뽀뽀한 술으로써 사람이 턱 밑에 종주 먹을 댈다.

b. 天宮의 일부이던 청유리 一張이 무슨 사물에 이리로 내려와서 제가 제 미에 흘러 지내느라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것 같다. 이 속에 들어와서 저런 룩이 생기다니! 조화가 아니 짓궂으신가! 본디부터 이만 절경을 보이자고나 하시기에 그 무서운 林路를 뚫고 나오게 하신 것일지 모르기도 하겠지마는 여하간 그 동안 지낸 것이 어떻게 괴롭고 지리한 것이었을까라도 그 빛을 감고도 나머지 있고 그 때를 씻고도 나머지 있음을 양탈할 수 없는 퉁퉁한 장면이다.

위의 두 글은 각각 三池에 도달하기 직전과 도착 직후의 경경을 묘사한 글이다. 화려한 문체가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그 화려한 문체는 또 현란한 어휘에서 뒷받침받고 있다. 앞 世代 분들의 글에서는 우리에게는 낯선, 그래서 권위있게 보이기도 하는 漢字語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崔南善의 글에서는 그 이외에 固有語 계열의 어휘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앞의 예문에서만 보아도 ‘끝맛한, 술으로써, 중주먹을, 사품에, 앙탈할, 푼푼한’ 등 매우 다채로운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그 중 많은 것은 우리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李基文 교수의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은 한때 廉想涉 등 작가의 작품에서 어휘를 뽑아 출제했던 적이 있다. 그 때 우리가 당혹하였던 것은 우리의 어휘력이 얼마나 빈약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 사이 언어가 변화한 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떤 斷絶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어휘와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일까?

어휘 斷絶의 책임을 반드시 작가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일단이 작가들에게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근래 작품들에서 그 어휘 사용이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남다른 어휘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작가의 한 要件이라 한다면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우리 작가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한 課題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남다른 어휘를 구사하는 작가(및 수필가)를 높이 평가한다. 근래 ‘넉넉하다’나 ‘푹푹하다’ 등의 형용사가 꽤 널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추측컨대 이는 대체로 法頂의 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⁴⁾ 필자는 法頂의 글을 여러모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유행을 일으킬 만한 좋은 어휘를 구사하는 점에서도 이 스님의 隨筆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崔一男도 어휘 驅使에서 특이한 영역을 보일 때가 있다. 특히 ‘곰삭다’는 어휘와 崔一男이 묶여 떠오르는 때가 많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곰삭다’는 崔一男의 전매특허품으로 인식된다.

徐永恩의 어휘 驅使도 필자에게 기쁨을 준다. 다음은 그의 소설 ‘먼 그대’에서 뽑아 본 것이다.

- (15) a. 소매끝이 날깃날깃 닳아빠진 외투며, 여름도 겨울도 없이 산 어은 쫄쫄이식 단화, 통은 넓고 기장은 짧아 발목이 경뚱해 보이는 취뚱새 바지, 보푸라기가 한 커나 얇은 투박한 양말, 서랍에서 꺼내어 얼전거릴 때마다 반찬내를 물썬 풍기는 가방 등 몸에 걸치고 지닌 것마다 구멍만 뚫리지 않았다 뿐이었다.

4) ‘푹푹하다’는 아직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다.

- b. 주인집과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여느 식구들은 문자가 새벽같이 출계함에 나와 대운 연기를 마셔 가면서도 연탄 화덕에다 신나게 부채질을 활락활락 해대며 때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 c. 나중엔 말끝마다 “이놈의 데 얼른 떠나야지, 더러워서 못해 막겠어.” 하고 군시렁거렸다 하면 견디야 한두 달이 고작이었다.

위의 예문을 보면 이 작가가 어휘 선택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밑줄 친 어휘들은 우리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崔南善이나 廉想涉 등 멀지 않은 시기의 작가들에게서 살아 숨쉬던 국어의 많은 부분이 이미 死藏되어 가고 있다. 죽어가는 어휘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작가들이 남다른 책임을 느껴 주었으면 한다. 동시에 훌륭한 어휘 驅使로 우리들을 기쁘게 해 주는 작가들이 더욱더욱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

7

이상으로 국어학자로서 작가들의 글을 몇 조각 진단하여 보았다. 체계적으로 모은 자료도 없이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여유가 생겨 문학평론가가 흔히 하지 못하는 이 방면의 작업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국어는 것처럼 여럿이 협동적으로 가꾸어 갈 때 生動하며 또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